

북핵 6자회담 타결... 합의문 공식 발표



북핵 6자회담이 13일 6개국의 합의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의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폐막 회의에 앞서 참가국 수석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국장, 한국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교차관. /연합뉴스

“核 불능화때 중유 100만 지원”

60일내 폐쇄때 5만t 우선 지원... “5개국 균등 분담”

北-美 양자회담 개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들이 13일 북한에 최대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 또는 현물을 제공하고, 북한은 영변 원자료를 비롯한 핵 시설의 폐쇄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disabling) 등 핵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개발의혹으로 파기된 지난 2002년 제

네바 합의 이후 4년4개월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17개월만에 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사태는 실전을 이 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날 오후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제5차 6자회담 3 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 문서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

만t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60일 내 폐쇄(shut down)할 경우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고 불능화까지 나머지 95만t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하기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했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9·19 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과 일본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어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실무그룹(WG)을 설치하기로 했다.

실무회의는 향후 30일 이내에, 차기 6자회담은 다음달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무안에 ‘나눔발전소’ 세운다

환경단체, 건설비용 24억원 모금 300kW급 태양광발전소 8월 건립 “수익금 빈곤층·제3세계 국가 지원”



김정욱 이사장

1호 나눔발전소가 기동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매년 269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스한 햇볕으로 전기를 만들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도 지킵시다.”

무안해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운영 수익으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환경운동단체인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이사장·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최고의 일사량을 자랑하는 무안에 태양광을 이용한 ‘사랑의 1호 나눔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나눔발전소 운동’은 시민 모금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 판매로 얻은 수익금으로 돈이 없어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빈곤층이나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는 시민 운동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운영 이익금을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와 세계평화

등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세계 최초의 공익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소로서의 의미도 크다.

300kW급 경사고정형으로 건설되는 1호 발전소는 일사량 수치가 높아 태양광 발전의 최적으로 손꼽히는 무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 비용 24억원은 시민 모금과 기업 기부,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총당한다. 완공 시점은 오는 8월로 잡고 있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 관계자들은 최근 무안군을 방문해 군유지 등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협조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무안군과 ‘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곧 발전소 설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발전소 공사와 시설관리에 지역 빈곤층을 고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는 “사랑의

운영 수익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사용된다.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돈이 없어 전기가 끊겼던 가구는 모두 17만4천여 가구, 2006년말 기준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는 13만5천421가구에 이른다. 사랑의 발전소는 이같은 ‘에너지 빈곤층’ 중 우선 1천600가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여력이 생기면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구호물자를 지원할 계획도 있다.

김정욱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돕고 환경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발전소 건립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나눔과 평화’ 홈페이지(http://www.energypeace.or.kr)에 캠페인 취지와 참여 방법이 소개돼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

라이터 반입 직원연루 수사

경찰, 발화장소서 2개 발견... 중대사 여수 방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여수경찰은 13일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된다는 보호 외국인의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5·7면〉

경찰은 최초 발화지점인 보호시설 304호에 있던 중국인 A(31)씨로부터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해 화질실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옆에 있던 중국인 이모(사망)씨가 방화 용의자인 김모(39)씨를 향해 ‘이러지마. 다음에 불

내지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화재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정밀감식을 벌이는 한편, 라이터가 보호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님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여수를 방문, “진상규명을 통해 한 점의 의문점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변호사 개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text partially obscured)

법률사무소 서정암

· 주 소: 2007. 2. 28일 오후 5시까지
· 업무시간: 2007. 2. 13일
· 주 소: 여수 동구 칠산동 715-2 법사랑빌딩 308호
· 전 소: 062-226-5111-4
· 팩 소: 062-226-0118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8

ALL LASH MASCARA

LANEIGE

안경선용

LANEIGE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